

# '5차례 협상'...광주지역 레미콘 단가 '4% 인상'

### m³당 6만8천400원에서 7만1천600원으로

### "경제 활성화 위해 대응적 차원서 양보"

광주지역 레미콘 단가가 수차례 협상 끝에 '4% 인상'으로 결정됐다. 광주레미콘협회와 대한건설자재직협회는 그동안 5차례에 걸친 협상을 통해 레미콘 단가 (25mm-24MPa-150mm 기준)를 m³당 현행 6만8천400원에서 7만1

천600원으로 4% 인상하는데 합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인상 단가는 지난 1일 공급분부터 적용된다. 당초 광주권 레미콘업계는 레미콘 제조원가가 지난해 대비 평균 7.2% 인상됐

다는 점에서 최소 5% 이상 인상에 줄 것을 요청해 왔다. 하지만 건설업계에서는 운송비와 자갈·모래 등 원·부자재 비용 지출 증가 요인이 있더라도 2-3% 선이 적당하다고 맞서 협상에 난항을 겪어왔다. 앞서 광주권 레미콘업계는 지난 5월 레미콘 운송비가 4천원 인상된데 이어 7월 1일부터 시멘트 가격이 t당 7만5천원에서 7만8천800원으로 5.1% (3천800원) 인상됐고 여기에 모래·자갈 가격 인상, 8.5제(8

시 출근 5시 퇴근) 도입,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제 전면 시행에 따른 인건비 상승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이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건설업계와 광주권 레미콘업계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호 상생의 입장에서 서로 양보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대응적 차원의 공감대를 통해 이번 단가 인상에 전격 합의했다. 차이는 있지만 현재 전국 각 지역에서 단가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전국 레미콘 수요의 40%를 차지하는 수도권은

10월부터 4.9%, 울산은 4.8%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또 부산권은 11월부터 2.0% 인상하기로 합의하는 등 향후 전국적으로 레미콘 단가 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광주지역은 매년 레미콘 단가 인상 때마다 레미콘업계와 건설업계 간 대립과 갈등이 극에 달했지만 올해는 협상이 무난하게 추진됐다. 업계 관계자는 "인상 때마다 첨예한 대립과 갈등 끝에 공급 중단 사태까지 치닫

는 경우가 비일비재 했던 과거와 비교하면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정경연 광주레미콘협회회장은 "레미콘과 건설업계 간 갈등으로 자재 수급의 불안이 심화할 경우 경영 악화는 물론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어 대응적 차원에서 상호 양보했다"며 "경쟁·대립에서 상생으로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지역 건설산업도 미래가 없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수회기자



서울서 선보이는 '동명양과자점' 쿠키 해외 대신 국내 여행을 택한 관광객이 늘며 지역 디저트가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가운데 광주 동구 동명동 소재 베이커리 전문점으로 호떡 크기의 쿠키로 유명한 '동명양과자점'이 서울 갤러리아백화점 명품관 고메이494에서 오는 28일까지 팝업 매장으로 선보인다. /연합뉴스

## 호남권 소기업 9곳 '탄소중립 실현' 박차

### 광주·전남중기청, 컨설팅 등 사용 최대 5천만원 '바우처' 지원

광주·전남중기청이 지역 제조 소기업의 탄소 중립 실현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21일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2021년 탄소 중립 경영 혁신 바우처 사업' 지원 기업을 최종 선정하기 위해 지역통합위원회를 개최, 광주·전남·제주지역 제조 소기업 9개사에 총 3억4천9백만원의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들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의 협약을 시작으로 최대

5천만원(정부지원금) 한도의 바우처를 지원받아 1년 동안 수행기관을 통해 회망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된다. '탄소 중립 경영 혁신 바우처' 사업은 제조 소기업의 저탄소 경영 체계 구축을 위해 탄소 수준 진단 후 심층 컨설팅 지원과 복수의 기술 지원 프로그램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번 사업에는 지난 7월 모집 공고를 통해 총 41개사가 신청했으며 약 3.6대1의 경쟁률을 뚫고

최종 9개 기업이 선정됐다. 특히 고탄소 배출 업종인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이 7개사 신청, 3개사 선정으로 최대 신청 및 선정 규모를 보였다. 기술지원 분야 프로그램별 신청 결과를 살펴보면 시제품 제작이 18건(29%)으로 가장 많았고 시스템 및 시설구축 17건(28%), 친환경·저탄소 인증 14건(23%), 탄소저감 설계 8건(13%), 친환경·저탄소 시험 4건(7%) 순으로 접수됐다. 장대교 광주 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제조 소기업이 탄소 저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광주·전남중기청은 앞으로도 다양한 국제 사회의 요구에 중소기업이 잘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책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양시원기자

**난방비 똑똑하게 절약하는 방법!**

- 겨울철 적정 실내온도는 20℃입니다. 난방온도 1도 낮추면 에너지사용량을 7% 줄일 수 있습니다.
- 복색이와 문풍지로 외풍을 막으면 실내온도를 2~3도 가량 높일 수 있습니다.
- 내복, 양말 등 실내에서 방한용품을 활용하면 체감온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 전열기는 꼭 필요한 때만 사용하고, 사용 시에는 소비전력을 꼭 확인하세요.

한국에너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

## 광주은행, 빛고을장학재단에 장학기금 전달

광주은행은 21일 광주시청에서 이용섭 광주시장과 송중욱 은행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재)빛고을장학재단 인제육성 장학기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사진> 광주은행은 이날 1천만원의 장학기금을 전달하고 광주지역 인재양성을 위해 쓰여지도록 했다. 송중욱 은행장은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인재들이 마음껏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광주·전남 대표은행으로

서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광주은행은 송 행장의 경영철학인 '이억 이상의 가치 추구'를 위해 '희망이 꽃피는 공부방(65호점)'과 '희망이 꽃피는 꿈나무(6호)'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 전체 채용인원의 80% 이상을 광주·전남지역 출신으로 할당 선발하고 대학생 홍보대사를 선발해 직장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1981년 설립한 (재)광주은행장학회를 통해 지역 학생



들에게 장학기금을 전달, 올해까지 4천여 명에게 총 35억원 상당의 장학기금을 지급했다. /기수회기자

## 광주·대구상의 "동서 광역경제권 구축"

### 상호교류 업무협약...민간 교류 활성화·공동 협력 강화

빛고을 광주와 달구벌 대구를 지칭하는 광역지자체간 '달빛동맹'에 이어 양 지역 경제계를 대표하는 광주상공회의소와 대구상공회의소가 '동서 광역경제권 구축'을 위한 민간 분야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광주상의는 21일 광주상의 본관에서 정장선 회장과 이재하 대구상의 회장을

비롯한 양 지역 상의 회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상호 교류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기업 경영 활동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양 지역 현안인 달빛고속철도의 조속한 착공과 2038년 하계 아시안게임 공동 유치 등에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장선 광주상의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이번 행사가 광주와 대구 지역 경제인들의 단순 우호협력 다짐을 넘어 달빛고속철도의 조기 건설을 비롯한 동서광역경제권의 성공적인 구축을 위한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하 대구상의 회장은 "동서화합을 상징하는 광주 대구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친선교류의 문을 넓혀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기수회기자

## 광주 업체 의류관리기 '드레스타' 홈앤쇼핑 방영

### 첨단산단 입주 LED전문기업 '이데아' 개발

광주 첨단과학산업단지에 입주한 발광 다이오드(LED) 전문기업 이데아가 개발한 신개념 의류관리기가 홈쇼핑을 통해 전국의 소비자를 찾아간다. 이데아는 자사가 개발한 의류관리기 '드레스타'(사진)를 오는 25일 오후 3시10분부터 중소기업 전문 홈쇼핑 TV채널 홈앤쇼핑을 통해 판매한다고 21일 밝혔다. 드레스타는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광주테크노파크, 광주디자인진흥원의 지원으로 탄생한 혁신적인 제품으로 평가

받는다. 바이러스 살균·항균에 이어 습기 제거를 통해 뽁뽁송송하게 의류를 관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공기 정화기능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또 집안의 미세 먼지와 의류에서 나오는 먼지나 냄새도 제거할 수 있다. 드레스타는 스마트 센서가 부착돼 옷을 걸기만 하면 스스로 작동하고 멈춘다. 해당 기능은 국내·외 특허와 디자인 등록을 마쳤다. 이데아 이데아 대표는 "중소기업중앙



회의 중소기업 제품 활성화 사업 지원을 통해 홈쇼핑에 진출하게 됐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소비자들에게 바이러스 살균이 가능한 다기능 의류관리기 드레스타가 크게 어필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양시원기자

## 광주 대인동의 문화공원 김넛과

**카페**  
식음료, 카페갤러리, 아트상품 전시 & 판매

**아트호텔**  
전객실 회화전시 / 장기숙박할인(음식조리가능)

지하갤러리(55평), 2층(75평) 전시, 상설공연, 도서관  
매월 마지막주 목요일 음악콘서트(저녁 7시 30분)  
최대 100여명 사용가능

주소 : 광주광역시 동구 대인동 52-2번지  
전화번호 : 062-229-3355 (자세한 내용은 문의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Tape to USB/DVD 영상변환서비스

# USB DVD

영/상/변/환/서/비/스

고객님이 소장하고 계신 TAPE를 가져오시면 USB/DVD로 만들어 드립니다.

- 화질 손실 없이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 언제 어디서든 쉽게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 보관 장소가 줄어듭니다.

스마트폰과 PC 모두를 위한 듀얼 USB 메모리

소니서비스센터 062)522-2000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24 (임동5거리) 직영서비스센터